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자치분권 2.0
보도 일시	2022. 1. 14.(금) 17:00			
담당 부서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후근 (02-2100-4090)
		담당자	사무관	김진태 (02-2100-4096)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김성민 씨, 대통령표창 수상

- 1.14.(금),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여 -

□ 3살에 보육원에 입소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김성민 대표가 제11기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4일(금),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김성민 씨를 포함한 26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4점

□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성민 씨는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17년 후 성인이 되어 퇴소했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숙생활 등을 하며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다.

□ 하지만 보육원 출신의 후배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 **김성민 씨**는 2018년부터 벽면 녹화 및 식물 인테리어 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 및 인턴 연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보호종료청년의 인권과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 수여식에서 김성민 씨는 수상소감을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털어놓으며, 앞으로도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밝혀 큰 감동을 선사했다.

○ 김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보호종료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싶다."고 밝히며,"보육원에서 17년을 생활하고, 보호시설종료 청년으로 살게 된 지 17년이 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겠다"고 말했다.

○ 이날 수여식에서는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의료봉사에 헌신한 의사 박철성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으며, 우종완 씨 등 3명이 '국민포장'을 김성민 씨를 포함한 8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한편, 정부는 이러한 보호종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보육원 출신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에 맞서 당당하게 꿈을 이뤄내신 김성민 씨에게도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 덧붙여 "**보호종료 청년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대통령표창 수상자 김성민 씨 주요 공적

성 명	주요 공적
 김성민(37)	**"사업가가 아닌 사명가"…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 지원** 보호종료청소년이 사업가로 성장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18년부터 보호종료청년 고용(7명)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기술교육 및 인턴 연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힘쓴 사업가 아닌 사명가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 김성민입니다. 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굶고 폭력에 시달리는 보육원에서의 삶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저는 6개월간 노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이유없이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저의 꿈이기 이전에 저의 필요였고,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족이 많습니다. 80명이 함께 지냈었고 240여개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부모님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도움과 사랑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올해가 참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17년간 생활했고, 보호종료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간 살아왔습니다. 올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대변하는 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행정안전부에서 부모님의 품처럼 따스하게 위로해 주셔서 혼자라 생각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이런 자리를 통해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함께 하고 있고 저의 삶을 기대해 준다고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저 또한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혼자라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기대해 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브라더스키퍼를 통해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와 브라더스키퍼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국민추천포상과 칭찬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지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저도 우리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